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60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15.

발 의 자 : 김승원 · 김용민 · 황정아  
안태준 · 이기현 · 김원이  
이건태 · 임호선 · 김준형  
이원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가족 등 여러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.

이에 2인 이상의 공유재산에 있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1조 제1항).



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경우로 한정한다”를 “자를 말하고,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합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)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41조(조합의 임원)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(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소유한 자[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(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로 한정한다]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,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.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(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)하여야 한다.	제41조(조합의 임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를 말하고,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<p>1. · 2. (생략)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